

국민의 관심이 재활용 성패좌우

김형철/자원재생공사 사장

지금처럼 환경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는 없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국은 재활용 물품과 폐기물을 구별하고 분류해 내는데 여념이 없다. 약간은 불편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과 작은 노력이 국토를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폐기물을 사회에서 쓸모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바로 자원재생공사다.

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9월 설립되었다. 지난 1월에 부임한 김형철 사장은 보사부와 환경처 등에서 근무하며 환경오염에 맞선 가장 오랜연륜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한 공이 인정이 되었는지 93년에는 환경처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환경과 자연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폐기물을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중책을 맡았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리우회담 이후 세계각국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수입과 수출에 유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사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자원절약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한다. 즉 리우협약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회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탄산가스를 규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역에서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결국 21세기의 선진국이란 자원절약과 에너지절약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원절약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국내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불붙기 시작한 자원재활용정신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의 재활용은 10~15%수준입니다. 선진국의 40~50%정도에 비하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3년간의 책임기간중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책임기간의 목표를 밝혔다.

김사장은 재활용 계획없이 종량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지만 자원재생공사를 중심으로 재활용 처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폐플라스틱 선별 파쇄시설을 7곳으로 늘리고 비축기지 또한 6곳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폐가전제품 처리공장과 농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 4기를 곧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다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재활용품을 천덕꾸러기에서 필요한 제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PET병 1개에 50g정도이지만 5t트럭에 아무리 많이 실어도 1t도 채 실을수 없다. 만일 가정에서 부피를 줄여준다면 4~5t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수송도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에서도 압축기 등을 국민에게 보급하여 국민 스스로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기업이 지불한 예치금 중 일부를 감면해 주어 비축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또한 재생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정부로 부터 특별예산 4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는 영세한 자원재생업체에 250억원 지원과 비축기지과 압축기 확보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재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정수)